

Developing the Safe Shooting Training System in Korea Reserve Forces: In Response to Gunfire Accidents

Seung Pil Namkung⁺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ersity, 443 Samrye-eup, Wanju-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military is a country's largest crisis control organization. Although the military has developed by investment of much time, efforts, and capital, and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crisis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must be flawless during a crisis as well the time of peace in the military. There have been many events and acciden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rve army, but a recent accident has a great implic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general reserve army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the conventional training program implemented in some of the army camps was reviewed, and method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training program were investigat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current shooting training method is effective in an actual combat situation in a national crisis, a safe shooting training system was proposed in order to provide various programs promoting army reserve trainees participation and implementing voluntary participation type army reserve training.

Key words: safety at shooting ground, reserve army substitute service system, crisis control

1. 서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는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도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현역 군부대와 더불어 예비군 부대에서도 평소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역시 3월부터 전국 예비군 부대의 훈련장에서 동원 및 일반 훈련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국가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군 훈련장에

서 예상하지 못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개요는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도중 한 예비군이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자살하였고 그의 옷에서 유언과 범행 계획을 적은 유서가 발견되었다. 세부적인 사건 개요는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고 국민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아래 <Table 1>에서 보면 1968년 4월 1일 예비군 창설 이후 총 7건의 훈련장 사건 중 3건이 소총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이며 우발적

⁺ Corresponding author: Seung Pil Namkung, Tel. +82-63-290-1708, Fax. +82-63-290-1709, e-mail, nksp1234@naver.com

Table 1. Past Accidents in Reserve Army Training Camps

Year	Accident	Note
1993	Yeoncheon, explosion during gun fire training (19 dead, 5 injured seriously or slightly)	-
1994	Namyangju, shooting during urban area combat training (1 dead)	-
1994	Daegu, suicide during shooting training	Firearm accident
1999	Gwangju, suicide during shooting training	Firearm accident
2001	Incheon, explosion during grenade throwing (1 injured seriously)	-
2004	Yangju, explosion of detonator of a battery for training (4 injured seriously or slightly)	-
2015	Neagok-dong, Seoul, mass shooting during shooting training	Firearm accident

* Source: Reserves firearms incidents were not also lighter in from past events. What incidents were, MK(2015).

으로 일어난 다른 사고와는 다르게 사고 행위자에 의한 의도적인 사고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된 사격훈련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 사격훈련 방법이 국가 위기 상황 시 전투현장에서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격훈련을 시행한 예비군의 목소리를 담아 발전적인 사격 훈련 시스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예비군 훈련제도와 내용을 살펴본 뒤 예비군 훈련 참가자 263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SPSS 18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비군 사격 훈련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예비군 사격 훈련의 보완/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연구의 이론적 논의

1.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 제도

우리나라 예비군 교육훈련은 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5조(훈련),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계획)~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의 목적은 동원 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 향토방위 작전 태세 완비 및 국가 총력방위태세 제고에 있으며, 병역법 제49조에 의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력동원훈련 및 소집점검훈련을, 병역

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대상 등)에 의거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2일 이내로 소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연 16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훈령에 근거한 각 군 규정 또는 교육훈련 지시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동원 훈련 미참자에 대한 훈련은 연차 이내 동원미지정자와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하여 동원미참자 훈련으로 전환된 자를 대상으로 수입군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동원미지정자는 동원에 대비하면서 동원소집 전까지는 항방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전시 기본임무수행능력과 향토방위 능력을 아울러 배양해야 한다.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시병력 동원절차, 병과 및 주특기별 실무훈련, 전술훈련 등을 실시하고 향토방위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부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항방작전 과제를 도출하여 훈련한다. 간부요원 및 공군 병 교육은 해당 군(육·해·공)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 훈련 지침을 적용한다. 항방기본훈련은 수입군 부대장 책임 하에 사격 및 안보교육과 항방작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훈련하되 실습위주로 유희병력 없이 전인원이 순환식 실습이 가능하도록 실습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항방작계훈련은 작전통제부대장 관할지역내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망라한다. 훈련은 수입군부대장 책임 하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 민·관·군 통합방위훈련(1회), 예비군지휘관 위임훈련(1회)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세부적인 구분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rve Army Training Hours for Individual Standings

Standings			Total	Mobilization training	Non-mobilization training	Local defense basic training	Local defense training according to a plan of campaign	Call check training	Preliminary time (hours)
Newly Discharged from Active Service (Commissioned Officer/Soldier)				-	-	-	-	-	160
Soldier	1st-4th year	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160	2 nights 3 days	-	-	-	-	132
		Un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	24 hours	-	12 hours (6 hours×2)	-	124
		Air force un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	2 nights 3 days	-	-	-	132
	5th-6th year	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	-	8 hours	6 hours	4 hours	142
		Un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	-	8 hours	12 hours (6 hours×2)	-	140
	7th-8th year			-	-	-	-	-	160
Commissioned Officer	1st-6th year	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2 nights 3 days	-	-	-	-	132	
		Undesignated for mobilization training	-	2 nights 3 days	-	-	-	132	
	7th-8th year		-	-	-	-	-	160	

2. 예비군 사격훈련 내용

개인화기 사격은 개인 사격수준 향상과 고장배제 및 응급처치 요령을 숙달 하는데 중점을 두고 <Table 3>와 같이 실시한다. 사격은 사격술 예비훈련, 실 사격, 고장배제 및 응급처치 등 통제 가능인원으로 조를 편성하여 순환식으로 실시하며, 개인별 전시 지급되는 총기로 사격을 실시한다. 실탄은 엎드려 쏘 자세에서 조교를 통해 예비군에게 전달하며, 사격 간 귀마개를 착용하여 청각장애로 인한 민원을 예방한다. 사격장에는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제한 시 응급환자 수송용차량을 대기시킨다.

III. 예비군 훈련간 사격훈련의 실태 분석

우리나라의 예비군 훈련 중 사격훈련은 이론적 논의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법규 및 지침이 전부이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에서 교범과 통제관들의 경험적 요인들을 가미하여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실태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격훈련장 및 훈련환경, 사격훈련장 안전조치, 사격훈련 방법 등의 주제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 기간 및 대상은 2015년 5월 18~29일 사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을 이용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SNS에 의한 자유 응답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총 265명중 미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26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도구는 SPSS 18을 사용하여 응답자 현황은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은 년차별, 학력별, 군 복무경험별로 각 항목을 교차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Number of Firing in Shooting Training

Type of training		5.56mm common bullet	CAR common bullet	Note
Mobilization training		9	-	Daytime 6, Night 3 (9 bullets during daytime, if night training is impossible.)
General training	Rifleman	6	13	5.56 mm : 3 bullet×2 times, CAR : 3 bullets for zero point adjustment, 10 bullets for record
	Sniper	39		9 bullets for zero point adjustment, 10 bullets for exercise, 20 bullets for record

Table 4. Questionnaire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naire	Cronbach's alpha	Note
Shooting training camp and training environment	.847	Good
Shooting training camp safety measure	.837	Good
Shooting training method	.346	Bad

1. 사격훈련장 및 훈련환경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예비군 훈련장은 대부분 시·군 단위로 대대, 연대(여단)급 주둔지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비군 창설 당시 또는 부대 이전 개편시 확보하였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수가 증가한 현 시점에서 협소하다. 또한 육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훈련장의 요건에 충족된 훈련장이 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군의 훈련장 확보율은 소요대비 74%에 그쳐 가용 훈련장이 부족하고 기존 훈련장 또한 이전과 폐쇄요구 증가로 고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주요국은 군사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훈련장을 규격에 의한 과학화 훈련장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이제 현역 대대급 훈련을 위한 과학화 훈련장 1곳이 유일하게 설치 되어있을 뿐이고 예비군 훈련장은 과거 창설 당시의 시설과 장비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예비군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금곡 훈련장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에서는 예비군 훈련 지원규정을 두어 예비군 종합훈련장 부지의 경우 도시형은 115,500㎡(3.5만평) 지방형(농·어촌형)은 66,000㎡(2만평)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예비군 훈련장의 실태를 보면

훈련장이 협소함으로서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련장 시설설치에 제한을 받고 입소 인원 대비 부족한 여러 물리적 조건들이 훈련만족에 기여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어 훈련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비군 훈련 중 안보교육은 군에서 각종 훈련시 필수적으로 포함 실시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안보교육을 위한 안보교육관은 종합훈련장시설기준을 볼 때 도시형은 594㎡(약 180평), 지방형은 300㎡(약 90평)으로 도시형의 경우 1일 훈련 입소인원을 기준 약 300~400명으로 할 때 2개조로 편성 훈련한다고 가정 시에도 1회 평균 약 150~2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수용하여 훈련하여야 함으로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안보교육 교관 1명에 의해 효율적인 교육이 될 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교육성과를 달성하기에 곤란한 실태이므로 이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항방과제나 주특기 훈련을 위한 시설기준도 19,500㎡(약 5,900평)로 설정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부지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인훈련과제는 그런대로 연병장이나 기타 장소를 활용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군 임무수행에 필수 요소인 전술훈련을 위한 훈련장은 시설기준이 도시형의 경우 시가지 훈련장을 포함 24400

Table 5.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Shooting Training Camp and Training Environment

Questionnaire	Very satisfied	Satisfied	Neither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Total
1.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shooting training camp facilities.	81 30.8%	88 33.5%	58 22.1%	9 3.4%	27 10.3%	263 100.0%
2.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of the complementary facilities and convenience facilities (restroom and lounge).	54 20.5%	55 20.9%	60 22.8%	47 17.9%	47 17.9%	263 100.0%
3. I am satisfied with the shooting training program including the PRI between a training and another.	75 28.5%	66 25.1%	60 22.8%	27 10.3%	35 13.3%	263 100.0%
4. I am satisfied with the auxiliary education materials for shooting training.	76 28.9%	73 27.8%	68 25.9%	20 7.6%	26 9.9%	263 100.0%
5. I am satisfied with the controlling ability of the instructors and teaching assistants.	87 33.1%	86 32.7%	44 16.7%	13 4.9%	33 12.5%	263 100.0%

m²(약 8,000평)로 되어있는데 장차전에 대비한 과학화 훈련장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역시 부족한 부지 관계로 충분한 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격장 역시 기본적인 영점 사격장을 설치하여 수준 유지 사격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훈련장의 여건이 실거리 사격을 위한 사격장 수준을 위해서도 부지 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하겠다. 동원훈련과 항방작계 훈련을 제외한 훈련은 대부분 대대 주둔지에 설치된 훈련장에서 실시된다. 훈련장에 기본적으로 설치될 편의 시설 역시 종합훈련장 시설기준에 명시하고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식당, 탈의실, 세면장, 급수 시설 등을 살펴보면 최근 예비군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많은 부대가 개조를 하고 설치를 하였고 식당 역시 제한된 규모이지만 시설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휴게실이나 탈의실 세면장 급수시설 등은 제한된 부지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서기나 혹한기 훈련은 지양하고 있지만 약 천후 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편의시설 부족은 많은 불만과 애로를 느끼게 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장 접근시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자가용 입소자가 늘고 있는데 훈련장 부지의 부족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 역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8]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 중 훈련장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련 입소인원 대비 수용할 수 있는 훈련장의 여건 특히 사격장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설문에서 나온 수치를 보더라도 현재 사격장 시설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에서 약 30%정도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사격훈련 보조시설 및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의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로 설문을 실시한 훈련장의 상태가 그나마 타 부대에 비해 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더

라도 예비군 훈련장에 화장실은 이동식 비수세식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도 훈련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휴게실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에 설문을 실시한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민망한 설문이었음은 인정하는 바이다. 시설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군 훈련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다. 사격훈련 간 PRI 등 사격훈련 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 28.5%만 만족을 표시하여 이 문제 역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 일반훈련 기준 평균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사격을 해야 하는 시간은 동미참의 경우 4시간, 일반 훈련 대상자의 경우 2시간에 사격 및 사격술 예비 훈련 등의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사격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저 사격 발수만 사선에서 사격하는 것에 만족하는 형태의 훈련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사격훈련 교육보조 재료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28%가 만족한다 하여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시간이 부족하고 교보재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교관 및 조교의 통제 능력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33%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예비군 훈련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2. 사격훈련장 안전조치 상 문제점

현재 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사격훈련 절차를 보면 몇 개조로 구분하여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하고 탄약지급전 안전수칙을 복창하며 사선에 투입되어 사격전 조교로부터 실탄을 인계받아 현역 통제관에 의해 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사격 준비과정에서 사격총기를 전방 안전 고리에 고정시키게 되는데 지난 5월 총기 사고 전까지는 지급된 총기를 각자 휴대한 상태로 사선에 올라와 개인이 휴대한 총기로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건 역시 이 같은 절차에 의해 특히 동원예비군의 경우는 입소당시 개인화기 지급을 하기에 개인별로 휴대하여 사격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러나

Table 6.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Shooting Training Camp Safety Measure

Questionnaire	Very satisfied	Satisfied	Neither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Total
6. I am satisfied with the arrangement of fixing the firing arms at the firing line.	127 48.3%	57 21.7%	40 15.2%	13 4.9%	26 9.9%	263 100.0%
7. I am satisfied with the arrangement of fixing the firing arms by using a lock at the front safety ring.	142 54.2%	55 21.0%	33 12.6%	9 3.4%	23 8.8%	263 100.0%
8. I am satisfied with the safety program between a training and another.	99 37.6%	78 29.7%	60 22.8%	7 2.7%	19 7.2%	263 100.0%
9. I am satisfied with the 25m zero point shooting.	106 40.3%	69 26.2%	44 16.7%	20 7.6%	24 9.1%	263 100.0%
10. I am satisfied with the current number of live bullet firing.	80 30.4%	59 22.4%	40 15.2%	35 13.3%	49 18.6%	263 100.0%

사고 후 각급부대에서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훈련 지침으로 인해 사선에 사격용 총기를 고정시키고 즉 20개의 사료가 있으면 20정만 사선에 비치하여 고정시킨 후 사격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 변경되었다. 이 또한 사격총기를 날짜별로 순환시켜 사격한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총기에 무리를 주어 고장율¹⁾을 높이고 총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를 지닌다. 예비군의 안전을 생각하는 면에서 사격총기를 사선에 비치 고정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는가 하는 물음에 약 51%가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한 것을 보더라도 군 생활 당시 개인화기는 개인의 생명과도 같다고 훈련 받은 예비군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격전용 총기를 전방 안전 고리에 자물쇠로 고정하는 것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54%만이 만족하다고 하여 자물쇠 고정이 사고예방의 모든 수단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사고 원인분석에서 나온 사고 당사자의 과거 병력 등의 문제도 수반이 되었지만 물리적인 수단으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군 당국의 의식수준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사격훈련 간 안전 관련 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 하는 물음에 역시 37.6%만 만족한다고 하여 현재의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사격 간 안전 관리는 사격 시작 전 안전수칙 낭독, 사격 간 안전통제관의 고장총기에 대한 응급처치, 사격 후 사선에서 안

전검사 및 탄피 반납 전 안전검사가 전부이다. 이 같은 안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발전적인 프로그램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25m 영점사격에 만족한다'와 '현재 실탄 사격발수에 만족하는가'의 물음에 각각 40%, 3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25m 영점사격은 총기를 지급받은 후 최초 자신의 사격기준에 맞도록 총기를 조정하는 사격을 말하는데 개인이 전시에 전장에 투입되기 전 영점사격을 통해 전투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훈련임을 감안하면 사격발수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다. 진정한 사격훈련은 예비군 복무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개인에게 지정된 총기를 이용하여 영점사격을 하고 수준유지를 위한 실거리 사격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점사격발수 역시 6발에서 9발로 탄착군 형성 사격만 하기 때문에 예비군의 응답 역시 사격발수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사격훈련 방법의 문제점

예비군의 사격훈련의 목표는 전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타격하기 위한 능력의 배양 및 숙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격훈련도 그랬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격훈련이 과연 전 후방 각 지역에서 적과 교전을 해야 하는 예비군의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훈련은 실전과 같이 실시해야 함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명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

1) 2015년 6월2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동일 예비군훈련장에서 과도한 총기 사용으로 총기고장이 생겼고 결국 총열부분에서 폭발사고 발생하게 됨.

Table 7.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garding Shooting Training Method

Questionnaire	Strongly agree	Agree	Undecided	Disagree	Strongly disagree	Total
11. Shooting training focused on safety control will help in a real combat situation.	80 30.4%	70 26.6%	52 19.8%	20 7.6%	41 15.6%	263 100.0%
12. Shooting training by computer simulation is necessary.	108 41.1%	52 19.8%	36 13.7%	24 9.1%	43 16.3%	263 100.0%
13. Actual distance shooting and combat shooting training as in an actual combat situation are necessary.	103 39.2%	68 25.9%	43 16.3%	17 6.5%	32 12.2%	263 100.0%

군 훈련이 사고 없는 안전통제 위주의 훈련이 되고 있음은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이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군 부대 지휘관들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기존 훈련 방법도 전시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실전과 같은 장소에서 실 사격훈련을 한 예비군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한 예비군의 전시 적응 능력을 비교해 본다 해도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현재의 사격훈련이 실전(實戰)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약 3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훈련 시 다소 형식적인 훈련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사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와 실전과 같은 실 거리 사격 및 전투 사격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각각 41%와 39%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많은 예비군이 긍정적인 응답을 할 것으로 예상한 질문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응답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군 생활과 예비군 훈련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저조하게 답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훈련을 하면 이상적이지만, 선진국의 경우컴퓨터에 의한 모의 사격훈련을 충분히 실시하고 실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IV. 예비군 훈련 발전 방안

1. 안전을 위한 사격훈련장 및 훈련여건 개선

규정대로 구비된 사격장에서 훈련하는 예비군 부대는 전국적으로 몇 곳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 센터에는 사격장이 실내사격장 구조로 되어 있어 주변 민원을 방지하고 방음장치와 안전장치 등은 현대화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장 역시 예산문제로 전국적인 예비군 훈련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한 예비군 사격장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에 국한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격훈련의 큰 문제인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제한한다. 사격장에 기본적인 안전시설 예를 들면 탄약 지급 및 회수시설, 사격을 위한 사선의 안전시설 등은 더 이상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시설이 필요한 것은 필자 역시 공감하나 물리적인 안전대책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안전대책 역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훈련장 주변 환경 역시 사격훈련 준비를 위한 시간동안 그리고 사격 후 사후 총기관리 문제까지 충분한 시설과 부수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훈련 간 사격장에서 해결해야할 기초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 훈련장에 충분한 부수적인 시설 즉 급수, 응급의료시설, 우천 시 훈련 가능한 시설 등을 훈련 인원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점사격 위주의 훈련장으로 실질적인 실거리 사격훈련을 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추가적인 실거리 사격장 설치 문제를 검토하고, 현역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실 거리 사격훈련장을 예비군 사격 훈련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격훈련에 대한 성과를 높이도록 보완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훈

련 간 필요한 사격술 훈련 교보재를 예로 들면 감사적, 감사틀 등의 장비 역시 훈련인원대비 부족한 실태임을 고려 개선된 과학화된 사격술 훈련 교보재 개발을 서두르고 사격전에 사격술 예비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격훈련 시간 역시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짧은 시간에 실시하다 보니 영점표적지에 실탄만 발사하는 형식적인 훈련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사격 훈련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여 충분한 사격술 예비훈련과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사격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한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격훈련장 시설 및 환경개선, 교보재 확충 등은 그 자체로 훈련 효과를 높일뿐더러 결국 훈련간 안전 위해요소를 숙달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사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격장 안전조치 개선

사격훈련 간 필요한 안전조치는 현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국방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총기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격장 사로에 투명 방탄유리 설치, 사격예비군 수와 비례하는 조교 및 교관 배치, 사격 간 이상 행동을 제압할 수 있는 대책으로 훈련 및 교관의 실탄 휴대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사격총기를 고정시키는 안전 고리 설치, 사격총기의 고정사용 등의 대책 등은 물론 선량한 예비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부족한 시설과 시간 등을 보완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의 보완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이외에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 개인의 국가를 위한 훈련이고 전시에 적을 제압하고 자신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훈련임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공감할 형성한다면 이 같은 물리적인 방법의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영점사격 시설에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현 군부대의 실거리 사격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드웨어적인 문제 이외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전역 전 현역 군부대에서 관리사병으로 분류된 자원의 예비군 편성 시 관리 문제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최 아무개는 제5보병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다 2013년 전역했으며 현역 시절 중등도의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으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현역시절 복무관리 실태를 예비군 부대로 넘겨주지 못해 가해자의 군 생활 당시의 정신질환을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나 의병 전역한 군 간부도 본인 스스로 별도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예비군에 편성되고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지 없이 사격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국방부의 대책은 전역 시 특히, '현역복무 결과(기록)'를 예비군 부대와 연동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지만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예비군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이외에도 '예산확보',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심층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현재 정신질환으로 예비군에 편성된 자원을 앞으로는 예비군편성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판정하는 문제에서 형평성과 병역기피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증 질환의 정신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은 하되 훈련을 다른 종류의 대체복무 형태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편성은 각 급부대 예비군 제대를 별도로 편성하고 훈련 주기 역시 별도로 지역단위로 편성하고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장 관리 및 훈련 보조역할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병역기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에서 관심병사로

통보된 자원은 사격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과 다른 형태의 대체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편성된 타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사격 훈련 방법 개선

사격 훈련 방법의 문제 해결은 사격 발수와 사격방법의 개선에 있다.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사격훈련 간 사격 발수가 현재 10발 남짓한데 경제적인 문제와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정도의 훈련으로 수준 유지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격훈련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보호와 적의 제압으로 국가를 방위하는데 있다. 경제적인 문제와 시설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등 시공간적인 문제가 뒤따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격 훈련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적정 수준은 실탄 사격훈련을 제안한다. 영점사격 이외에 실거리 사격까지 포함하여 충분히 숙달되고 수준유지를 할 수 있는 적정 사격발수 등에 관한 연구와 훈련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에 현재 사선에 고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총기의 주기적 순환을 철저히 시행하여 고장을 증가에 따른 또다른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많은 실탄사격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에 따른 실탄 사격이외의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된 IT 분야와 접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격 시설을 많이 확보하여 훈련을 실시한다면 실탄 사격 발수를 제한하더라도 사격술 훈련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될뿐더러 안전성 확보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본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정책부서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이 제한되었고 지속적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안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제시한 대

안에 대해 예비군들의 훈련 만족도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발생한 예비군 훈련 간 사격장 안전사고에 따라 우리 예비군 사격훈련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현장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설문한 결과 사격장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사격장 안전 실태, 현재의 사격방법이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격장 시설 보완과 추가 설치, 사격훈련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의 확충과 보완 등이 필요하고, 사격 훈련 간 필요한 각종 교보재의 과학화된 개발과 보급으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훈련 시간부족 문제 역시 별도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 주어야 사격 간 시간에 쫓기는 현상 속에서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격장 시설과 환경 개선의 문제는 결국 안전과 결부되어 충분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 안전한 사격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격장 안전조치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문제 역시 시급한 문제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병행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특히 예비군 편성 전 과거 정신 병력이나 군 관심사병으로 분류 관리된 자원에 대한 별도의 편성과 예비군 훈련 대체 복무 제도 등을 도입하여 사격장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격훈련 방법의 개선 문제로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격 발수와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사격 방법의 개선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에 대한 예비군 훈련의 만족도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격훈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바 이 같은 제안이 정책적으로 채택되어 발전된다면 예비군 훈련 분야의 사격훈련 분야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의 후방 지역 작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Reserves Firearms Incidents were not also Lighter in from Past Events. What Incidents were. MK. 2015.5.13.

The Reserve Army Manua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5.

Kim, Chan Kwon. 2010. A Study on the Plan of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Improvement under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Kim, Hyun Jo. 2007.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and the Korean Reserve Army System's Development Measures.

Kim, Chan Kwon and Seung Pil Namgung. 2015. *Understanding Mobilization for National Defense*. Seoul: Jinyeongsa.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2015.

김찬권. 2010.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훈련 개선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조. 2008. 국방개혁 2020과 한국 예비군제도의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찬권, 남궁승필, 2015. 국방동원의 이해. 서울: 진영사.

매일경제신문. 2015.5.13. 예비군 총기사고 과거 사건들도 가볍지 않았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

Received: Jul. 17, 2015 / Revised: Feb. 16, 2016 / Accepted: Feb. 24, 2016

예비군 총기사고에 따른 안전한 사격훈련 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

국문초록 군대는 국가의 가장 큰 위기관리 조직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투자되고 발전되어 가지만 군 내부의 기본적인 위기관리와 각종 안전관리를 위한 부분은 유사시만이 아니라 훈련시에도 완전 무결해야 함은 논할 가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군 창설이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왔으나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 사고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훈련에 임하는 다수 선량한 일반 예비군대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된 사격훈련의 내용과 안전보장이 힘들었던 기존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 현 사격훈련 방법이 국가 위기 상황 시 전투현장에서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예비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성과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이 보장된 사격장 환경 조성 및 안전 기준 강화 등 안전한 사격 훈련 시스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사격장 안전, 예비군 대체복무제, 위기관리

Profiles **Seung Pil Namkung** : Ph. D, Department of Politics, Kyonggi University (Dissertation: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n Police System after Reunification," 2004) Professor,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ersity. The author's research interest includes military leadership, national security, veterans welfare, Korean reunification, and military counseling skill. The representative publications include "A Comparative Study on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dical Service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Military Units (2011)", "Study on the scheme to reinforce military security system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2015)", "Study of Applicable security tunneling technique for military wireless network (2015)"(nksp1234@naver.com).